

RI TIME

전가동향

현수애자, 계약 최저가 경쟁입찰제로 확정

배전용 폴리머 현수애자 단가계약방식이 기존의 '적격심사최저가경쟁입찰제'로 결정됐다. 한전은 오는 4월 열리는 배전용 폴리머 현수애자 단가계약과 관련, 기존의 적격심사최저가경쟁입찰제를 고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신규업체들이 주장하는 희망수량낙찰제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기존 방식인 적격심사최저가경쟁입찰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업체들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적격심사최저가경쟁입찰제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뒤 최종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예전부터 한전에 납품해왔던 업체에겐 20점에 달하는 실적점수가 추가로 부여되고 있다.





저압원격검침 확대 불투명

100kW 미만의 저압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원격검침 사업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올해 전국적인 확대가 예상되던 저압원격검침 사업은 전용 주파수 확보와 경제적 효과 미비, 전력량계 개발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9월 LG산전을 주 사업자로 한 제주도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전국적인 확대에 나서려 했으나 현재 시범 운용에만 머물고 있다.

저압 검침의 확대가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우선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저압 수용가 약 16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검침을 수행하려면 전기검침 전용 주파수 확보가 전제돼야 하지만 정통부는 아직도 한전의 주파수 할당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한전에게 전국적인 확대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은 현재 출시된 전력량계는 기술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며 업체가 기술개발에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는 사업 확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발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선뜻 전력량계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 물자구매계획 확정

조달청은 올해 조달물자구매 규모를 지난해 사업실적 8조 7386억원 보다 7.6% 늘어난 9조 4000억원(내자 8조 8000억원, 외자 6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올해 내·외자 물품에 대한 구매계획도 종합예시했다.

물품구매 예시제도는 관련업계의 계획생산 지원 및 기술개발유도, 경쟁촉진, 조달물품의 품질향상, 조달물자의 적기공급 등을 사전에 예시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내·외자 구매 총 예시규모는 8조 4965억원으로 내자구매는 지난해 예시규모 7조 1983억원보다 9.8% 증가한 7조 9002억원이며,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하는 물자는 1563개 품목 5조 8645억원,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물자는 147개 품목 2조 357억원이다.

외자구매 예시규모는 5963억원으로 기상청 등 277개 국가기관이 3757억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335개 지방자치단체가 944억원, 부산교통공단 등 88개 정부투자기관 등이 1262억원으로 총 700개 기관의 수요물품을 종합예시 했다.

이에따라 총예시규모 8조 4,965억원중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자구매는 5조 8,645억원으로 전체의 69%에 해당하며 국제입찰에 부쳐질 물자구매는 2조 6320억원으로 31%에 해당한다.

구매예시자료는 책자로 배포되며,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나라장터에 게시된다.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국내업체 3중고속 수출타격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업체들이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발표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과열과 세계경기 회복 기대감에 달려화 약세에 따른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 비철금속 등 17개 원자재 품목을 포함한 로이터 상품지수가 작년 6월(1416.9)부터 오르기 시작, 지난 1월6일 1671.1까지 올랐다. 특히 전기동(銅)의 경우, 중국의 수요급증으로 국내에 전기동 원료인 동 스크랩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동 가격 역시 작년 1월 t당 1647달러에서 올 1월16일 2389달러까지 상승했다.

전경련은 국내 업계의 원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기동의 적정가격은 t당 2000-2200달러라면서 현재의 가격은 적정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루미늄 역시 지난해 10월 t당 1474달러에서 지난 1월16일 1610달러까지 상승했으며 니켈, 아연 등 여타 비철금속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업체들은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원재료 구매부담 증가로 자금압박도 받고 있지만 원가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해 채산성까지 악화되는 3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원제품 원가구성에서 부품 및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 수출 주력상품의 가격경쟁력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자원 확보 차원에서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자

원부국들과 자원협력 외교를 강화하고 부품·소재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 원자재 가격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변전지리정보시스템(TGIS) 1단계 구축 완료

전국 각지에 설치된 송변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송변전지리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됐다.

한전은 지난 5일 본사 회의실에서 송변전처와 정보화추진처 주관으로 '송변전지리정보시스템(TGIS) 1단계 개발완료 발표회'를 개최했다.

TGIS란 전국에 설치된 방대한 송변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지리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비의 재원과 이력, 계통 연결정보 등을 지리적 위치정보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송변전 통합 시스템을 일컫는다.

TGIS 구축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한전은 지난해 12월 1단계인 지리정보관리와 설비관리 구축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2002년 9월부터 15개월 동안 진행된 1단계 사업은 국가기본도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가공 및 지중송전설비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토록 한 송변전 포털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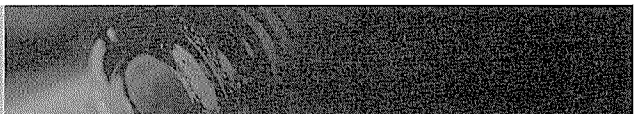
한전은 또 내년 3월까지 중기보강계획수립, 모바일 송전설비관리, 운영예산관리, 유지보수설계 등 설비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며 변전설비 통합관리, 변전도면통합관리, 계통계획수립지원, 설비건설공사지원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3단계 사업은 2006년까지 완료된다.

물드변압기 시장 '각축전' 예고

연간 800억원대로 추정되는 물드변압기 시장을 놓고 업체간 각축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물드변압기 시장은 LG산전과 ABB코리아, 효성,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산일전기, KP일렉트릭 등 중소기업이 포진한 상태다.

여기에 조만간 중견 업체인 조일성업(대표 김영성)이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어서 업체간 가격경쟁과



시장 주도권 다툼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설비 보강 등을 통해 몰드 시장 진출을 준비해 온 조일성업은 관련 인력을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하는 등 올 한해 몰드변압기를 회사의 주력상품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조일성업 관계자는 “이미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막차를 탄 느낌은 있지만 그동안 쌓아 온 지명도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겠다”며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유입변압기보다 몰드변압기 수요가 차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당수의 업체들이 관련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를 기점으로 몰드변압기 시장 쟁탈전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압기 수요가 점점 유입에서 몰드로 이동됨에 따라 업체 입장에서는 몰드변압기를 생산하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몰드 시장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면서 중소기업 중 몇 곳이 신규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업체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G산전과 ABB,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4사가 90%에 가까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현 시장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몰드변압기 시장은 LG산전이 25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98년 시장에 뛰어든 ABB코리아가 230억원대의 매출을 올려 2위를 기록했다.

